

광주 기초단체장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

남구청장 성현출 · 서구청장 임우진 선두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 남구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성현출 후보가 19.9%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방송(주) 에버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를 통해 지난 9일부터 3일간 조사, 발표한 결과를 보면 "누가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19.9%가 성현출 후보라고 응답했다.

그 뒤로 김병내 후보 13.7%, 임형진 후보 10.8%, 조성철 후보 9.5%, 정재수 후보 8.6%, 김용집-김점기 후보 5.1%, 이철원 후보 4.8%, 기타 후보와 적합한 후보 없음이 각각 5.9%, '잘 모른다'는 응답이 11.5%였다.

또 서구청장 후보 적합도에서는 임우진 현 정장이 32.2%로 2위 후보와 큰 차이를 두고 1위를 차지했으며, 서대석 후보 10.2%, 김보현 후보 5.1%, 김성연 후보 4.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후보자 선택기준 조사결과는 '도덕성'이 27.1%로 가장 우선 시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정책-공약'이 19.6%, '소속 정당'이 17.2%, '인물'이 14.0%, '정치적 경험과 배경'이 12.4% 순으로 뒤이며 '기타'와 '잘 모른다'는 각각 5.2%와 4.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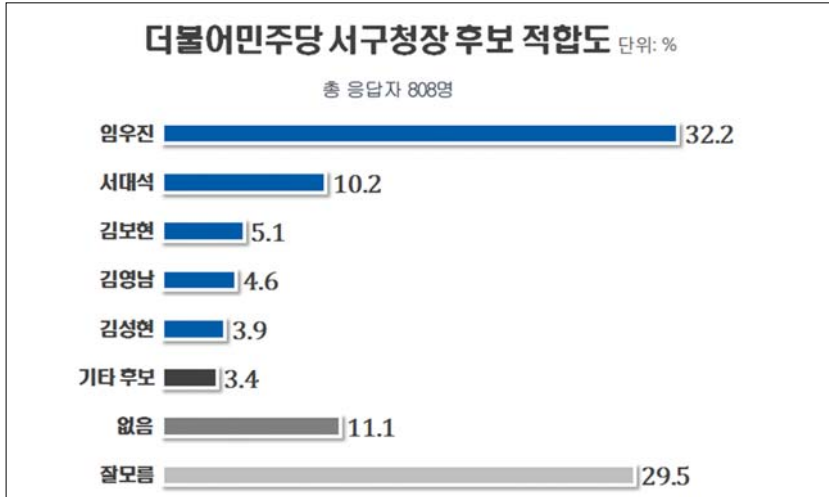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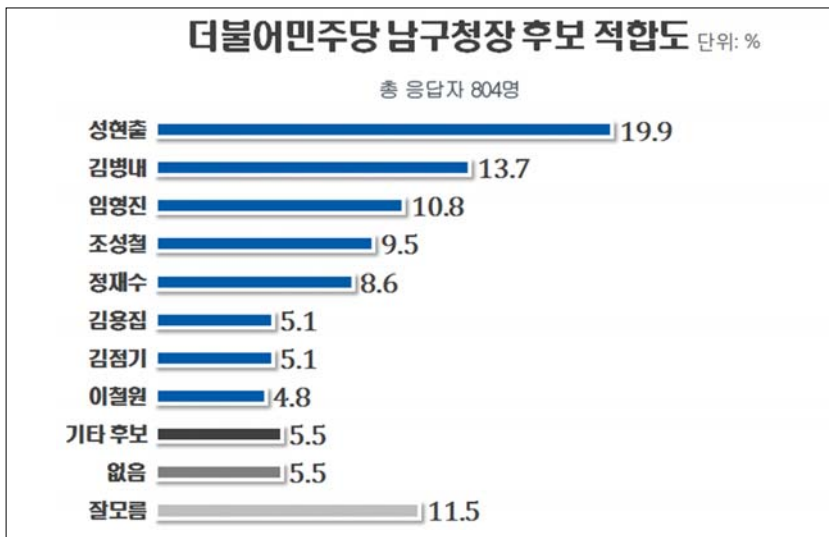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62.8%, '민주평화당'이 10.4%, '바른미래당' 8.0%, '정의당' 4.9%, '자유한국당' 3.4%, '기타 정당' 1.1%, '무당층(없음)' 4.4%, '잘 모른다'는 9.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광주시 남구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 응답 방식, 표집 방법은 무선 50% 가상(안심)번호 프레임과 유선 50%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를 통한 임의접기(RDD) 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2018년 1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법(립가중)을 적용했으며, 표본(표본수 804명, 응답률 2.7%)오차 측정에서 신뢰수준을 95% 오차 허용범위 ±3.5%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은홍 기자



광주시, 내달부터 공용차량 공유 서비스 사회적 약자 대상...총 22대 월 2회 최대 5일 이용 가능

광주시가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 차량을 사회적 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차량 공유서비스를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용차량 공유서비스는 광주시 자원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와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에 따라 시가 보유중인 차량 중 승용차 14대와 승합차 6대, 전기차 2대 등 22대가 시민들에게 공용차량으로 제공된다.

이용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세 자녀 이상), 북한이탈 주민 가정 등이다.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봉우 기자

공용차량은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는 월 2회로 휴일이 계속되는 경우 1회 최대 5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이용일 10일 전부터 4일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팩스를 통해 하면 된다. 이번 첫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받는다.

시는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과 광주경찰청의 협조를 거쳐 이용자와 운전자 자격을 확인하고, 이용 이틀 전에 신청자에게 공용차량 이용가능 여부를 알려줄 방침이다.

승인정보를 받은 신청자는 시청에서 오전 8~10시에 차량을 인수해 이용하고 오후 5~8시에 수령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차량이용료는 없지만 유류비와 통행료, 과태료, 교통사고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등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영·호남 9개 지자체 조기 건설 힘 모은다

대구서 제2차 실무자협 논의

광주시와 대구시 등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9개 지자체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20일 대구시청에서 광주시·대구시, 담양·순창·남원·함양·거창·합천·고령 등 9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협조회의를 거쳐 이용자와 운전자 자격을 확인하고, 이용 이틀 전에 신청자에게 공용차량 이용가능 여부를 알려줄 방침이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실무자협의회에서는 광주시·대구시의 자체 사전타당성 용역과 국비확보 방안, 지자체장 협의회 개최 등이 논의된다.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광주~대구간 191.6km를 고속화철도

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6조3087억원이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광주~대구를 1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어 호남 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의 낙후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동시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권준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획일화된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지방과 지방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루는 현 정부 정책과도 부합한다"며 "동서통합과 통합의 의미가 큰 만큼 경제성 논리보다는 국가 재도약의 비전을 담은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해남 · 나주 · 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전문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서울가정법원 2017년 936 상속판정승인
사 말 자 : 남 주 현 (741019-1006015)
최후주소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길 4-11, B02호(석촌동)

위 망 남주현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제3항)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할 신고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8년 2월 20일

공고인: 양정화, 남재정
주 소: 전남 나주시 다시면원동길 60-4 (월태리)
한정승인수리일: 2018년 2월 7일
공고기간: 2018. 2. 20 ~ 2018. 4. 21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건설면허신청
- 가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법인설립
- 기업진단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류동센터 30동 217호(웅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동구,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동구,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광주 동구는 아시아음식문화거리의 랜드마크 및 불거리 조성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상징조형물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사업을 홍보하고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한다.

상징조형물이 들어설 지역은 구시청 입구(문화전당로35번길 1 주변)로 기존의 전광판을 철거한 후에 설치할 예정이다.

공모내용은 아시아음식문화거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문양이나 문구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크기와 형태 등은 자유롭게 하며 차량통행, 유동인구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서구, 여성친화 주민참여단 모집

광주 서구가 오는 28일까지 여성친화 주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

주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아카데미, 정책 및 도시공간 모니터링 실습 등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안 등의 역할을 한다.

서구는 여성친화 주민참여단이 젠더 관점에서 구정을 보고 비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성평등 교육을 통해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서구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주민으로서 양성평등 실현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남구,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눈길

광주 남구 푸른길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에서 오는 3월부터 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19일 푸른길도서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4월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14~36개월 영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감속삭 책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총 15회가 참여하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책놀이 및 발달 율동 등을 배울 수 있다.

또 4~5살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알록달록 토달공예 프로그램'도 3월부터 4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된다.

이와 함께 3월부터 5월까지 두달간 매주 목요일에는 6~7세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림책과 함께 종이접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3월부터 7월까지 매일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도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꿈지락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이 선을 보인다.

북구, 마을버스 777번 신설 · 운행한다

광주 북구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주민 맞춤형 교통환경 마련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북구는 오는 21일부터 살레시오고에서부터 광천터미널까지 이어지는 마을버스(777번) 신설 노선을 운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북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계획을 수립, 지난해 11월 (주)남강고속관광(대표 김홍주)을 운송 사업자로 최종 등록하고 지난달 31일 마을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류소, 차고 및 카드 단말기 등 개통에 필요한 시설들을 완비했다.

버스노선은 '살레시오고(기점) ~ 일신·일동초교 ~ 고려중 ~ 비엔날레전시관 입구 ~ 경신·중앙여고 ~ 문화예술회관 ~ 광천터미널(종점)'로 총 10.8km 구간이며, 정류소 27개이다.

광산구 · 광산구노사민정협, 청소년 노동인권 토론회

광주 광산구가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토론회'를 21일 오후 2시 야호센터에서 개최한다.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는 광산구가 청소년, 현장 활동가들과 진행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진전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광산구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과 청소년 노동인권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함께한다.

광산구는 지난해 6월부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현할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사업'을 진행해왔다.

임형택 기자